

제 1 강 철학의 언어, 언어의 철학

◆ 1교시 신생 학문으로서의 언어학

오늘부터 언어 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 수업은 일단 개론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언어철학이라는 분야에 사전 지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더 심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언어철학이란 게 무엇인지, 언어를 주변으로 하는 언어학이라든지 이러한 학문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서도 순서가 나와 있었지만,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인데 일단 오늘은 첫 날이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1주차인데, 2,3,4, 해서 8주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선을 달리듯이 1주부터 시작해 8주가 지나면 여기쯤 와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주부터 8주까지 가면 다시 첫째 주, 오늘 한 이야기와 다시 만나게 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격에 해당하는 8주에 할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오늘 언급이 될 거예요. 수업 듣다 보면 무슨 소린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8주가 지나 다시 만났을 때 보면, 그 때 그 소리가 이 얘기였구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제목이 철학의 언어, 언어의 철학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언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왜 언어가 철학의 문제가 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 언어학의 성립

일단 언어를 보는 다양한 관점. 언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생긴 것은 그리 역사가 오래되지 않지요. 그리고 언어철학이라는 분야가 아직까지도 서점에 책 훑어보시면 아실 텐데 철학 안의 다른 분야들보다도 굉장히 적어요. 언어철학자도 적고, 저서도 적고. 언어 철학의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책을 찾으려도 많지가 않아요.

언어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20세기에 만들어진 학문이죠. 그 전에는 언어학이라고 하는, 영어로 linguistics라고 부르는 그 분야가 과거에는, 물론 문법을 연구하는 분야는 아주 역사가 오래되었죠. 기원전 몇 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주 오래된 학문이기는 한데.

이것은 학문이라기보다는 규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을 지켜야하는가 이런 것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법 연구가 말하자면 규범 문법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문법이다 하는 것들. 서양에서는 3학문, 4학문 7개의 학문이 있었잖아요. 중세시대 때 있어서. 이 중에 요즘 말로 했을 때 인문학에 해당하는 분야가 ‘문법, 수사, 논리’ 이 세 가지가 인문학에 해당하는 교양 수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역사는 오래되었는데 옛날에는 그것들이 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와 같이 규범에 관련돼 있었던 것이지, 기술(記述)하는, 그러니까 있는 현상을 보고 기술하는, 이것이 과학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학문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20세기에 와서 그 전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정도 해서 음성학이라는 학문이 시작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이때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우리가 르네상스를 지나고 고대 고전주의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출현하잖아요.

그것이 출현하면서 그 전까지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다양한 대상들에서, 물질적인 분야를 과학에게로 떼어 놓죠.

그래서 철학은 정신적인 것과 관계되는 분야만 담당하게 되고. 그래서 데카르트 이분론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면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보더라도 육체와 정신을 떨어뜨려놓고 보고, 철학은 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또 해부라는 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것은 칼을 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사람 몸에 다 칼을 댈 수 없었죠. 칼을 댈 수 있다는 것은 동물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정신에다 칼을 못 대었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 정신에 칼을 대기 시작한 것이, 말하자면 정신을 해부하기 시작한 것이 더 최근에 들어와서의 일인데 그런 것들이 심리분석, 정신분석학도 그런 것들이고. 신성시 되던 정신에다 인간이 칼을 대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시절의 학문과 더불어 또 한 번의 큰 학문적인 전환점이, 철학사에서는 비중이 적을 수 있는데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큰 전환점 중 하나가 실증주의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증주의자 하면 프랑스의 오귀스트 콩트 Auguste Comte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실증주의의 출현 의미가 무엇이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간의 정신에다 칼을 대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된 어떤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서 인문학부, 인문학도 과학으로 할 수가 있다.

그 전까지는 과학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과학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변적인 것을 떠나서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있어야하는데 인문학의 대상은 잡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실증적인 어떤 것, 그래서 오귀스트 콩트는 사회학 sociology라는 말을 만들어냈죠. 처음으로 사회학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라는 거였죠. 인간은 사회화된다는 것, 역사화된다는 것, 실증한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사회학이라는 것이, 물론 요즘 하는 사회학과는 좀 다른 것이죠. 사회학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만들었다는 것이지 지금의 사회학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sociology란 말을 그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내면서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분야도 실증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언어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하잖아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고들은 만들 수 없고 들릴 수도 없지만, 말을 할 때의 소리는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실증적 방법으로 연구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음성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수 있었고.

잠시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음성학과 음운론이라고 부르는 것 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무엇이 다른지는 이때 얘기하도록 하고.

음성학의 출현과, 좀 전에 얘기했던 문법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에 비교문법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문법과 저 문법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실증적인 방법으로 언어에 접근하여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을 줄 알았던,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못 했는데, 성공할 것이라 기대했던 분야가 ‘역사 비교 언어학’이라고 하는 분야. 무엇이나면, 유럽언어 중에서 로망스어라고 부르는 어군이 있는데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이탈리아어 이런 언어들을 로망스어라고 부르죠.

그 언어들의 유사성을 비교를 하다 보니, 문헌을 가지고 위로 거슬러 올라가보니 ‘지금은 다른 단어인데 몇 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니 같은 단어가 나오더라, 몇 년도 즈음에 이것이 분화가 된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는데 더 올라가 볼수록 더 근접해지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로망스어 같은 경우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분명한데 그 로망스어를 제외한 나머지, 게르만 어라고도 하는 독일어, 영어 이런 언어들 그리고 슬라브어 이런 언어들도 위로 올라갔더니 이것들이 만난다는 거죠.

로망스어끼리 유사성 있는 것이야 너무 당연한 애긴데, 위로 올라가봤더니 게르만 어나 슬라브어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더라, 친족관계가 확인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물학과 같은 재미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도 실증적인 방법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수학적 공식으로 만들기까지 했어요. 이 속도로 언어분화가 일어나면,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갈라진 연도는 이 정도 연도

가 되겠다는. 하지만 사실은 실패했죠. 어쨌든 간에 그런 시도까지 했었다는 얘기고요.

그게 비교 언어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언어학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언어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기 보다는 역사죠 역사. 의복사처럼, 프랑스 사람은 이런 옷을 입고 독일 사람은 이런 옷을 입지만, 거슬러 올라가보니 어느 시대에는 같은 옷을 입었었더라, 이것이 의상학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것을 언어학이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당시로서는 언어를 조금이나마 대상으로 하는 분야였던 것이죠.

이런 것이 언어의 내재적 본질을 연구하기 시작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와 결부가 되는데 소쉬르라는 스위스 학자도 원래는 역사 비교 언어학자였어요. 그것도 당대의 아주 유명한 비교언어학자였는데, 스위스 주네브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에는 이 사람도 역사 비교 언어학 수업을 했었고 논문도 발표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뭔가 자기가 새롭게 연구해가고 있는 분야를 발표하기를 주저해요. 그러면서 제자하고 강의만 하죠.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된 것들을 책이나 논문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의 동료 언어학자인 메이예Antoine Meillet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프랑스 학자인데.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한 구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는 앞으로 점점 언어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것 같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름대로 당시 최고의 언어학자로서 연구하던 비교 언어학 분야의 한계점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죠.

어쨌든 간에 발표는 하지 않고 소쉬르는 죽는데, 그 사람의 사후에 제자들이 강의록을 모아 책으로 낸 것이 그 유명한 <일반 언어학 강의>라고 하는 책이죠. 그런데 <일반 언어학 강의>는 소쉬르 사후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필기한 노트를 가지고 두 명에서 만든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소쉬르의 본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성도 조금 이상하거든요. 소쉬르가 직접 책을 썼다면 구성을 이렇게 했을까 싶은, 부분 부분 잘 안 맞는다 싶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디까지가 소쉬르의 생각이고 어디부터가 제자들의 해석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인데요. 어쨌든 이 책이 20세기의 인문학 역사를 바꾸어놨다고도 할 수 있는 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쉬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가지고, 물론 언어학의 출현도 이 시점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언어학 이외의 다른 인문학 분야에서도 소쉬르의 이름을 빼 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인문학의 파일럿 같은, 인문학을 끌여가는 학문이었던 것이죠, 언어학이.

▲ 랑그와 랑가주, 랑그와 파롤

그런데 무엇을 다루기에 언어학이 이런 지위를 얻을 수 있었는지. 소쉬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제일먼저 떠올리는 것이 ‘랑그langue’와 ‘파롤parole’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문제는 그 단어와 결부가 되는데.

이게 불어에 나와 있는 ‘말’이라는 단어에는 랑그langue 말고 랑가주langage라는 또 하나의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 구별이 사실 다른 나라 언어에는 없지요. 영어에도 없고, 물론 한국말에도 없고.

그런데 저 두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둘 다 language예요. 불어에서는 저것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언어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어라는 게 사실 사고를 이루는 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언어가 만들어져있지 않으면, 언어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런 사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여기서도 보이죠. (소쉬르는) 프랑스 어를 쓰기 때문에 저런 발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영어를 쓰는 사람이었다면 저런 발상을 할 수 없었겠죠, 단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해요.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도 범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범주를 열 개로 나누는데, 술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는데, 그것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만일 그 사람이 영어를 쓰는 사람이었다면 범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한국어를 쓰면 또 달랐을 테고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썼다면 철학사 전체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철학사 뿌리는 그리스에서 온 것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실존이란 의미의 ‘다자인Dasein’이라는 말. 다 자인이라는 말이 영어에는 없지요, 사실. 굳이 해석하자면 da가 there, sein이 be잖아요. 그래서 being there 정도로 번역이 가능한데, 영어에서는 단어가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한 단어로도 충분하잖아요. 이런 것은 독일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죠. 두 개의 사고, 그러니까 being이라는 것과 there라는 것 두 개의 사고를 일부러 결합해야 할 노력도 필요 없는 것이죠. 아예 다자인이란 한 단어로 있으니까 독일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거지.

마찬가지로 프랑스 사람들도 랑그와 랑가주의 구분이 익숙해요. 다른 나라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없는 발상이죠.

한국말에서도 많잖아요. 한국어의 정(情), 인연과 같은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사실

번역이 불가능한 것이죠. 한국말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단어의 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철학이라는 게 그래요. 그 사람들의 사고, 철학을 이해하려면 그 나라 말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 같은 기호를 공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기호 그것이 바로 랑그예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저도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살던 집 주인이 언어학 공부한다고 하면, 아 언어학 공부하세요? 몇 개 국어 하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랑가주였던 것이죠. 인간의 언어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진 내재적 능력. 그런데 집주인이 몇 개 국어 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때의 언어는 저 위에 있는 랑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어, 영어, 한국어 할 때는 랑그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동물에게도 언어 능력이 있는가?’에 해당하는 언어는 랑가주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둘의 구별이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동물에게도 언어 능력이 있는가 할 때에도 그냥 랭귀지고, 불어도 프렌치 랭귀지이죠. 그래서 이런 구별이 없잖아요. 한국어에서도 물론 없고요. 그냥 언어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이를 소쉬르가 두 가지를 구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언어학의 대상을, 랑그라고 잡아요. 그 이유를 드는 게 소쉬르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랑가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다. 전부 랑가주가 아니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단어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심리학이 될 수도 있고 역사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별별 분야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랑가주를 언어학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것은 하나의 단일 학문이라고 볼 수 없는 여러 학문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언어학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랑그라고 하는 것을 언어학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정해진 코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하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랑그를 언어학의 대상으로 삼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소쉬르의 문제점은 하나의 대상을 찾아 언어학을 정화시켰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자리를 과연 제대로 잘 잡아왔는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 소쉬르도 역시 아까 말했던 실증주의적 인문학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좀 전에 말했던 랑그라고 하는 것,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의 공통된 집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라고,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사회학적인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언어는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불어, 스페인어, 한국어 하면 무언가 좀 잡히잖아요? 그래야 언어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소쉬르도 여전히 실증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음성학도 그러하였지만, 소쉬르도 역시 실증주의적 사고, 다시 말하면 인문학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역사화된, 사회화된 것을 대상으로 삼아야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말이죠. 소쉬르의 언어학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내면에서 보면, 랑그와 파롤이란 말도 구별하는데. 그 두 개는 무슨 근거로 구별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랑그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에서 쓰기로 한 코드라고 했잖아요. 규범화된 정해진 어떤 것. 반면에 그걸 가지고 가져다 쓰는, 이것이 파롤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파롤이에요.

파롤을 영어로 한다면 스피치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라는 것이죠. 랭키지의 상대어는 스피치,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말들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다양해서 학문의 대상이 될 순 없는 거고. 랑그라고 하는 하나의 체계, 이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랑그와 파롤을 구별이에요.

사실은 이와 유사한 이분법은 굉장히 많아요. 이후에 촘스키도 유사한 말을 쓰긴 했지만, 촘스키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이 촘스키는 competence(언어능력)라는 말과 performance(언어수행)라는 말을 두 개를 구분해서 썼지요?

competence는 말을 할 줄 아는,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실제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performance라고 구별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쉬르가 하는 말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촘스키는 이런 말로 그런 평을 거부할 하죠.

내가 말하는 competence라는 말은 소쉬르가 얘기했던 랑그와 차이점이, 소쉬르가 말한 랑그는 하나의 저장 창고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딱 고정되어 있어서 거기서 있는 말을 뽑아서 쓰는, 사전 같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촘스키 본인이 얘기했던 competence는 잠재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안에서 말들을 쓰는 것이고 그게 performance고 이런 식으로 차이를 두죠.

어쨌든 간에 크게는 그런 거예요. 하나의 내재적인 시스템, 이것을 소쉬르는 랑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자 개별적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런 것들, 이 두 개로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랑그와 랑가주의 구별에 이어, 랑그와 파롤의 두 개로 구별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 시니피앙 개념의 발견

그 다음에 인문학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이 인용된 언어학에서의 용어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일 거예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가 그렇게 유명한 하나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정의가 불분명해요.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부분을.

불어에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영어에서는 signify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의미한다, 기호한다는 뜻인 시니피에signifié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프랑스 어에서는 현재분사와 과거 분사 사이에서의 커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뒤에 -ant를 붙이면, 불어 발음으로 -앙이 되는데 이게 붙으면 규칙 동사인 경우에 현재 분사가 되고, 뒤에 -에라고 발음하는 e에다가 엑센트 찍는 -é가 붙으면 과거 분사가 돼요.

그래서 시니피앙, 시니피에라는 것은 ‘의미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하나는 ‘의미하는’ 현재 분사로, 다른 하나는 ‘의미되는’ 과거 분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의미하는 것’과 ‘의미되는 것’. 한 마디로 말해서 능동과 수동이란 얘기죠.

그 두 개의 쌍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소쉬르가 불어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프랑스 사람들은 그 두 개로 쌍을 만드는 것이 익숙하거든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놓고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저런 발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한국 사람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민감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령 ‘피곤한’이라는 단어를 보자면 ‘저 사람 피곤한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라는 문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 사람 피곤한 사람이야, 건드렸다가는 계속 말시켜서 엄청 피곤하게 하니까’. 이 말일 수도 있고,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니까 쉬도록 건드리지 마.’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국어에서는 단어 하나만 놓고 보면 이것이 능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수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불어에서는 이 두 가지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과 ‘피곤을 당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요.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언어 사용이에요. 모든 동사에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만들어 형용사로 많이 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니피앙, 시니피에라는 말이 불어에서 쉽게 이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될 수 있었던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의미를 주는 것’과 ‘의미를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상을 부르잖아요?

가방이라고 한다면, ‘가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대상을 지칭한다는 거죠. 일종의 이런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이 학자들마저도 혼동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능동으로 무엇을 행하는, 그 다음에 수동으로 무엇을 당하는, 이런 두 개를 다른 분야에서도 써먹을 데는 매우 많아요. 정신분석학이나 사회학이라든가 하는 여러

분야에서 이 개념을 많이 가져다 사용하는데, 그러면서 큰 오류를 범한 게 있어요. 소쉬르가 말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구별은 인문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아까 제가 그런 얘길 했었죠? 소쉬르의 언어학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뭔가 역사화되어야 그것이 학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한계였다고 말했는데, 반면에 그것을 넘어선 것도 있었어요. 그것이 시니피앙 개념의 발견이었는데, 소쉬르가 발견한 이 시니피앙이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큰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후대의 다른 학자들이 그것을 간과한 것이죠, 특히 다른 분야에서. 그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언어활동이라고 한다면, 그 언어활동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내가 소리를 내서 무언가를 의미해내잖아요?

제 입에서 ‘가방’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머릿속에서 어떤 대상을 그리시잖아요? 이 두 개의 관계라고, 다시 말해 ‘소리와 관념 사이’에서의 조합 관계가 언어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음성학에서 다루는 것이었고, 관념이라는 것은 철학에서 다루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하나는 철학에서,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실증주의적 음성학에서 다루는 것이었는데, 이 때 언어학이 대체 무엇인가. 이 상태에서는 언어학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무언가, 이것을 발견한 것이 시니피앙이라는 개념이에요. 시니피앙이 무엇이나면, 아까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리라는 것은 지금 제 입에서 나는 소리이고요.

그런데 제 입에서 나가는 소리들 중에서 한국어 단어들도 나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하는 것 혹은 으흠,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음향학적으로는 제 입안에서도 별 소리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입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발로도 낼 수 있고 우리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라는 하면 음성과 음향을 구별해낼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요, 한국말에 ‘감기’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에서 자음은 몇 개가 있나요? 세 개가 있지요. 몇 종류가 있나요? 두 종류가 있지요. 그 다음 모음은요?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ㄱ/과 뒤에 있는 /ㄱ/은 소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르죠? 환경이 달라서. 그런데 똑같이 기억이라고 부르죠? 아까 자음은 두 종류라고 했으니 저 두 /ㄱ/은 똑같은 /ㄱ/으로 친 거죠. 그렇게 하면 두 가지인데, 아까 발음이 같은가 여쭙봤을 때에는 다르다고 했어요.

달라요. 그럼 소리가 세 가지란 얘기에요. 아까 두 개라 했는데 지금은 세 개예요. 그럼 뭘까요? 두 개라는 것은 무슨 근거이고 세 개라는 것은 무슨 근거일까요? 소리로 따진다면 사

실 앞에 있는 /ㄱ/과 뒤에 있는 /ㄱ/은 달라요. 그렇다면 표기를 다르게 해야지 왜 똑같이 써요?

여기서 보면 [감기]라고 발음 할 때 뒤에 있는 /ㄱ/은 유음화 된 ㄱ이죠. [kamgi] 이렇게 발음되죠. 그런데 앞의 /ㄱ/을 [g]으로 발음하지 않아요. 누가 [gamgi]하고 발음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뒤에 것을 무성음화 시켜 발음하지도 않죠. 가끔 외국인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kamki]라고 발음 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외국인들은 한국어에서의 /ㄱ/이 무성음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성음으로 발음하려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음성학적으로는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어떤 틀, 그러니까 실제 소리들이 아니라 그 ‘소리의 이마주’라고 소쉬르는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어떤 틀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소리 저 소리 다 나가는 그 소리 말고, ‘추상적으로 뽑아낸 어떤 틀’이라고 하는 그것을 소쉬르는 시니피앙이라고 불러요.

▲ <일반 언어학 강의>에 나타난 불균형과 엘름슬레우의 주장

그런데 <일반 언어학 강의>가 소쉬르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제자가 펴낸 책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 좀 전에는 ‘소리와 관념’에서, ‘소리’라는 것과 ‘관념’이라는 것이 언어 활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소리는 음성학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관념은 철학에서 다룰 부분이었는데, 소쉬르가 발견한 시니피앙이라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리의 이마주, 실제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이미지. 아까의 예에서 보면 [k]나 [g]와 같은 소리가 아니라, 그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똑같은 걸로 본다는 얘기죠.

이것을 시니피에라고 불어에서 발음을 하는데, <일반 언어학 강의> 책에서 보면 시니피앙이라는 것은 소리가 아니고, 소리의 틀 혹은 소리의 이마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니피에는 관념이라고 해요. 뭔가 이상하죠.

이게 소쉬르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소쉬르 제자들의 해석이었을까요?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구도가 좀 이상해보여요. 만약에 소쉬르가 더 소쉬르다우려면, 시니피앙이 소리가 아닌 소리의 이마주라고 애길 했다면, 시니피에도 관념이 아닌 관념의 이마주라고 했어야하죠.

그런데 저렇게 나와 있어요. 저게 소쉬르 생각인지 제자들 생각인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는 저렇게 나타나 있고, 다시 말하면 사실 이 안에서 불균형이 있

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쉬르보다 더 소쉬르식으로 해석한 사람이 엘름슬레우 Louis Hjelmslev라고 하는 덴마크의 언어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니피앙이 소리가 아닌 소리의 틀이다. 그렇다면 시니피에도 관념이 아닌 관념의 틀이어야 한다. 그래서 언어학의 대상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관계를 언어학의 대상으로 삼아야한다.

다시 말하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음향적인 것으로 빠질 수 있고 관념은 철학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것이고, 언어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사이에서의 상호 관계, 이게 언어학이라고 엘름슬레우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쉬르가 얘기하고, 엘름슬레우가 이어 받아서 했던 그 틀 공식, 이런 것들이 이외의 다른 인문학 분야에서 차용하여 사용하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라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일반적으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던가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문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는 것,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일은 날씨가 좋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여기서 말한 ‘날씨가 좋다’가 시니피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뭐 실제로 하늘이 맑게 그려져 있는, 이게 시니피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과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얘기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대립은, 오히려 시니피에와 관념사이의 대립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언어학적 해석 말고 정신분석학적인 해석 있잖아요?

말하자면 말 속에 들어있는 다른 말, 하나의 말이 감추고 있는 다른 말. 예를 들어서 친구 들끼리 너 배고프지 않니 하고 물어보죠. 그거 왜 물어봐요? 그때 친구가 진짜 배고픈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내가 배고프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너 배고프지 않니? 라는 말에 들어있는 다른 의미, 나 배고프다 지금 뭐 좀 먹어야겠다 하는 것이 시니피에가 되는 거고, ‘너 배고프지 않니’라고 물어보는 것은 시니피앙이라는 거예요. 또 다르죠?

이런 식으로 본래 의미에서의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에 많이 떨어져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소쉬르는 이렇게 쓰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소쉬르의 시니피앙 시니피에와 나의 시니피앙 시니피에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 소쉬르가 발견한 시니피앙의 의미

아까 얘기했던 실증주의적 구도 하에서는 관념적인 것, 사변적인 것은 철학에서 다루는 것이었고,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리학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 설 자리가 없어요. 물리학 아니면 철학이에요. 이것은 르네상스 이후에 가던 구도 그대로예요.

소쉬르가 말한 그 시니피앙 시니피에라는 것은 이제까지 찾아보지 못했던 그 어떤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랑그를 언어학의 대상이라 말하면서 실증주의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넘어서게 된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후대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시되고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20세기 가장 큰 인문학적 발견 중 하나였는데 그것이 많이 왜곡되었죠. 그게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관계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니피앙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아까 감기를 우리가 예로 들었잖아요. 앞에 나온 /ㄱ/과 뒤에 나온 /ㄱ/이 서로 다르냐, 같으냐를 보았을 때, 소리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달라요. 하지만 시니피앙 차원에서 보자면 이것은 똑같은 것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별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변별성이 있다, 없다’는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 같다를 구별해낼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아까 소리의 차원에서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성음이고 하나는 유성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성, 무성의 관계는 성(聲)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뜻인데 이것은 한국어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성음으로 발음해야 할 자리에 유성음을 넣는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까처럼 [kamgi]해야하는데 [gamgi]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냥 저 사람 발음이 좀 이상하구나 하겠지만.

하지만 [kamgi]라고 해야 할 자리에다 [mamgi]라고 한다면, 즉 /ㄱ/을 /ㅁ/으로 하면 분명 틀린 것이예요. 하지만 유성음 넣을 자리에 무성음을 넣는다고 틀리지는 않아요. 이 말은 한국어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 사이에 변별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서양의 많은 언어들 사이에서는 유성과 무성의 변별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s]와 [z]는 똑같은 소리인데 하나는 진동이 있고 하나는 없죠. 성대에 진동이 없고, 있음에 따라서 발음이 매우 달라져요. 그래서 [faiv]할 자리에 [vaiv]하면 틀리는 것이예요.

서양어에는 유성과 무성이 변별성이 있지만, 한국어에는 변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변별성을 가지고 어떠한 틀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시니피앙이에요. 유효한지 아닌지.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소리를 가지고 증명해 보인 사람이 후에 트루베츠크이 Trubetzkoy라는 사람인데, 음운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죠.

그 전까지는 phonetic이라 불리던 것을 phonology라는 말로 새롭게 바꾸어 써요. 한국어로는 음성학 혹은 음성론이라고 불리던 것을 후에 소쉬르가 제시한 시니피앙이라는 개념으로 새로 만들어낸 부분을 음운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별성을 가지고서 변별성이 있다 없다, 이것은 +와 -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추상적인 이야기죠. 실제의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를 만들기 위한 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s]와 [z] 사이에서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소리가 아니라 유성이나 무성이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실체가 아니라 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릴, 체, 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가 달라지잖아요. 또 다시 말하자면 그 틀 자체는 빈껍데기잖아요.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용물인데, 이 학문적으로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물이 있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틀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음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증명해 보인 시니피앙의 개념이에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